

## 1994

## 디자인진흥원사

- 디자이너의 날 선포(5월 2일)
- 제1회 《전국중고생 산업디자인 공모전》 개최
- 서울 국제산업디자인박람회 개최
- 세계 산업디자인 심포지엄 개최
- 《서울 국제산업디자인교류전》 개최
- 《중소기업지도상품전》 개최

## 한국 디자인사

- 삼성전자 디자인연구소 설립
- 한국디자인학회 재발족
-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VIDAK) 창설
- 광복50주년 기념취장 제정
- 삼성 애니콜 브랜드 사용 시작
- KBS, MBC 디자인 특집 프로그램 방영
- 안그래픽스『디자인사전』 발간
- 『인서울매거진』 창간

## 한국 사회사

- 김일성 사망
- 지존파 사건
- 성수대교 붕괴 사고
- 서울1000년 타임캡슐 매설
- 1인당 국내총생산(GDP) 1만 달러 달성
- 다음커뮤니케이션 설립
- 안철수연구소 설립
- 케이블 TV 본방송 개시

## 디자인의 해, 디자인 주간: 산업디자인 발전의 원년

산업디자인은 생산 기술과 함께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로서 신경제 도약을 위하여는 독창성 있고 우수한 디자인 개발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는 1993년 7월 7일, 상공자원부가 ‘산업디자인 진흥 대책’을 발표하고 디자인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1993년을 산업디자인 발전의 원년으로 삼은 뒤 열린 ‘산업디자인 주간 선포’ 기념식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김교만 전 서울대 교수의 말이다.<sup>52</sup>

정부 차원에서 디자인산업을 장려, 진흥하기 위해 ‘디자인의 해’를 선포한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1973년과 1989년을 각각 디자인의 해로 선포하고 나고야 세계디자인박람회 등 각종 국제 대회를 개최했으며, 대만도 1989년 이후 5월을 디자인의 달로 선정, 각종 국제 디자인 행사를 추진한 바 있다.

우리나라 또한 상공부와 KIDP의 주도로 산업디자인의 발전과 홍보를 위해 1993년 9월 1일부터 약 보름간 디자인 주간을 선정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기념식을 비롯해 산업디자인 분야 발전에 공로가 있는 유공자에 대한 포상, 우수 디자인 수상작 전시, 산업디자인 개발 성공 사례 발표 등을 비롯, 관

련 학생 및 일반인이 참가하는 ‘디자이너의 밤’, ‘한일 공동 산업디자인 세미나’ 등 다양한 디자인 행사를 개최해 일반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이듬해인 1994년 5월 2일을 ‘디자인의 날’로 제정, 선포해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디자인 주간과 디자이너의 날은 이후 ‘산업디자인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1997년까지 지속되었다.

한편, 이러한 인식 확산을 위한 행사와 병행해 KIDP는 ‘산업디자인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였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진행된 ‘제1차 진흥종합계획’에서 주안점을 두었던 사업은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생산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독창적 디자인 중점 개발’, ‘기업의 독자적인 개발 기반 조성’, ‘산업디자인의 국제화’, ‘디자인 의식 고취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 전개’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와 인력 육성, 정보에 대한 유통 체제의 구축, 국제 기술 협력 및 교류 강화 등이 세부 업무로 추진되었다.



1



2

1 1993년 디자인주간 선포식

2 1994년 디자인의 날 선포식